



한국 제과기술을 책임지는 산실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의회

제과인에게 '과기회'라는 이름은 단순한 모임 이름이 아니다. 이름 석자만 대면 이는 내로라하는 기술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기회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제과업계 기술인을 대표하는 모임의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이다.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 정상에 우뚝 선 제과인이 뭉쳐 한국 제과 기술을 책임지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의회를 재조명해본다. 글·홍선화 편집장 | 사진·주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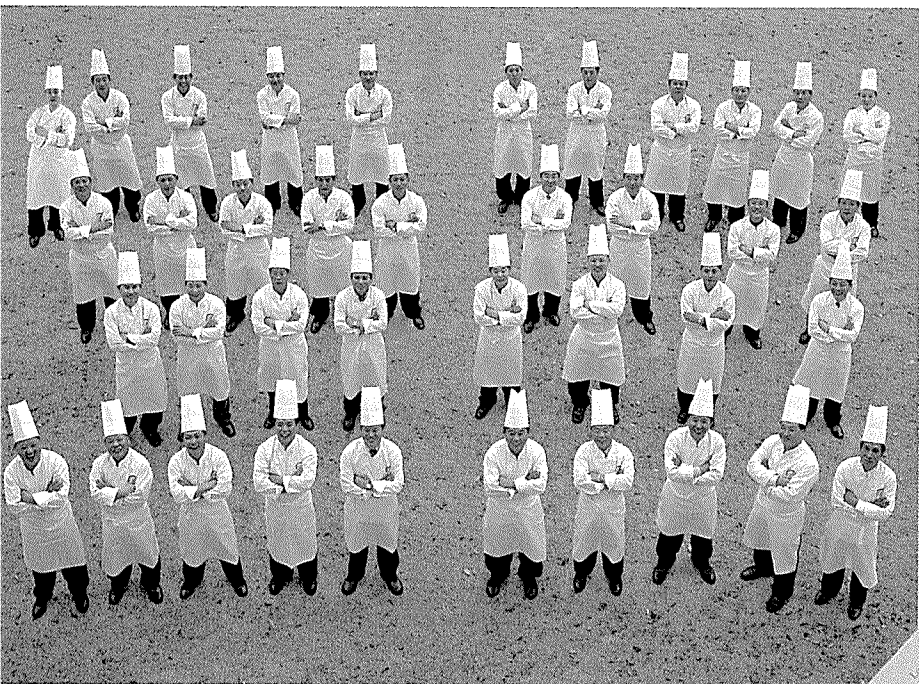
수많은 모임 가운데 제과업계 기술인을 대표하는 모임을 꼽으라고 하면 과기회가 단연 첫 손에 꼽힌다.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 정상에 우뚝 선 제과인이 뭉쳐 한국 제과 기술을 책임지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의회(이하 과기회)는 지난 1985년 '한국제과우수기술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기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순수 기술인 모임이다. 알차게 운영하던 과기회는 업계의 당면 문제였던 제품 기술력과 인력난을 지켜보면서 친목 모임에서 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며 우리나라 제과기술 역사를 다시 썼다.

초창기만 해도 대부분의 회원이 공장장의 신분으로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 유럽으로 기술 연수를 다녀와 시야를 넓혔고, 해외 유명 셰프를 초청해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선진 제과 기술을 익히는 등 지난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한번의 외도 없이 우리나라 제과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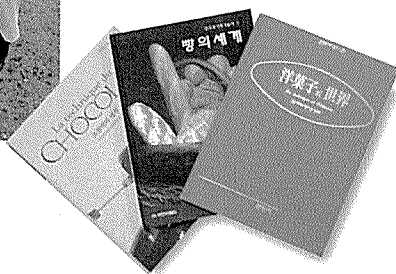
총 3권의 기술 총서 발간해 업계 모범 보여

과기회 업적 중 가장 큰 자랑거리로는 기술총서 발간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제과기술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순전히 회원들만의 힘으로 기술서적을 펴내는 쾌거를 이룬 것. 2년의 산고 끝에 <양과자의 세계>를 출간한데 이어 <빵의 세계>, <초콜릿의 세계>를 연이어 발간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초창기 회원들이 대부분 공장장에서 경영자의 위치로 바뀐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 명칭을 한국제과우수기술자협의회에서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회로 변경했다. 과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은 초창기 때와 비교해 전혀 달라짐이 없다. 과기회 회원들 모두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어 모두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회원들 모두 과기회 일에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아무리 바빠도 모임에는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애쓰는 덕분에 19년 동안 평균 출석률 98% 이상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의회 임원진. 사진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원석 총무, 최형일 재무, 위재상 서기, 김웅일 감사, 정운용 부회장, 최원도 회장, 황일하 부회장.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의회는 지금까지 <양과자의 세계> <빵의 세계> <초콜릿의 세계> 등 총 3권의 기술서적 시리즈를 발간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월간 <베이커리> 취재가 겹친 제 117차 정기모임에는 23명만이 참석하는 이변을 낳았다. 홀수달마다 17일이면 어김없이 모였던 모임 날짜를 김이수 회원의 자제 결혼식이 있던 18일로 갑자기 변경해 과기회 역사상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보인 것이다. 회원들은 떠썩한 미소를 지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불참한 회원들을 위한 변명을 대신 해주기에 바빴다. 그만큼 회원들 간의 정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다.

과기회는 수많은 모임 가운데 회칙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모임 불참자와 회비 미납자에게는 엄격한 사정의 칼날을 세워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무단결석하면 바로 제명처리된다. 또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해도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회칙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최원도 회장은 원칙은 고수하되 제과업계 발전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생각이다.

1년에 1명꼴로 이루어지는 과기회 회원 가입 조건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우선 기술인이 아니면 제 아무리 유명한 제과인이라도 절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기술인 중에서도 과기회 회원들이 그 기술을 인정할 때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과기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 이 관문을 통과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모임에 불참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참석자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나마 만장일치로 결정하던 예전에 비해서 신입회원 가입이 훨씬 수월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가입과정 덕분에 4전3기 끝에 가입한 회원도 있다. 심지어 10년 전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들어온 회원도 있다. 올해는 오병호 회원이 가입에 따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신입회원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과기회 회원들의 자부심은 상당히 높다. 출석률이 높은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2년 동안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회원도 있다. 황일하 부회장, 우원석 총무, 이인호·한문연 회원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5월 정기총회때 개근한 공으로 순금 5돈을 받았다.

20주년 맞아 온라인 활성화로 제2의 도약

과기회는 2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에 나선다. 먼저 오프라인에 머물렀던 모임을 온라인에서 그 꽃을 활짝 피워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계획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지난해 오픈한 홈페이지 (<http://bestbakers.or.kr>)를 통해 회원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제과 기술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이 최고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품 향상력을 위한 기술세미나는 물론 경영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경영세미나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이다. 그동안 기술총서 발간 작업에 참여한 편집위원들은 또 한번의 산고를 겪을 생각에 난색을 표명하지만 기술총서 4번째 시리즈로 곧 쿠키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쿠키의 세계>를 펴낼 계획이다.

“이제는 후진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사) 대한제과협회의 기술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제과업계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과기회 업계에 이바지하는 모임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죠”

임원들의 포부에서 밀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과기회 로고에 담겨있는 ‘함께 성장하자’는 뜻을 새삼 깨닫게 한다. ㉞